

본 분석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 사항을 전달해드립니다.

1. 본 분석서에서 독해형 문항(4번, 5번, 20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설은 EBS 해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EBS 해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BS 해설은 출제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해설이 아닌 EBS의 자체 해설이다 보니 이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3. 본 분석서는 모든 73개의 선지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따라서 맞은 문항이라도 선지 분석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분석서의 내용 중 오타자나 오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연결됩니다.)

문의하기

2024 수능 생활과 윤리 총평

등급컷만 봤을 때는 쉬운 시험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마냥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 1등급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등급컷이 올라갔을 뿐, 작년 수능 대비 조금 어려운 시험에 속한다. 그러니 등급컷에 의존할 것이 아닌 표준점수에 비중을 두도록 하자.

블로그에 생활과 윤리 관련 칼럼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생활과 윤리 공부법, 킬러 개념 정리 등 다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단 버튼을 클릭하면 블로그로 연결됩니다.

블로그

[정답 : ①]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근거를 탐구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행위의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규범적 속성의 존재론적·인식론적 지위를 탐구하고,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며, 도덕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① (가): 도덕적 삶의 지침이 되는 보편적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 ② (가): 도덕 현상 간의 인과 관계를 가치중립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 ③ (나): 학제적 연구 방법으로 실생활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 ④ (나): 각 사회의 다양한 도덕적 관습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 ⑤ (가)와 (나):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 제시문 파헤치기 |

(가)는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근거를 탐구’, ‘마땅히 행해야 할 행위의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를 통해 이론 윤리학임을 알 수 있다. (나)는 ‘규범적 속성의 존재론적·인식론적 지위를 탐구’,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 ‘도덕 추론의 규칙을 검토’를 통해 메타 윤리학임을 알 수 있다.

| 선지 해설 |

{정답 해설}

① 도덕적 삶의 지침이 되는 보편적 원리, 즉 도덕 원리 자체를 제시하는 것은 이론 윤리학의 핵심 과제이다.

{오답 해설}

- ② 도덕 현상 간의 인과 관계를 가치중립적(혹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도덕 현상을 바라보는 중립적 관점을 중시한 기술 윤리학에 해당하는 입장이다.
- ③ 학제적(혹은 간학문적) 연구 방법으로 실생활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방면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책 제시에 초점을 두는 실천 윤리학에 해당하는 입장이다.
- ④ 각 사회에 다양한 도덕적 관습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에 해당하는 입장이다.
- ⑤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각각 언어 분석학, 논리실증학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인 메타 윤리학에는 옳은 입장이지만, (가)인 이론 윤리학에는 해당하지 않는 입장이다.

| COMMENT |

기본적 개념만으로도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이었다.

[정답 : ④]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쾌락의 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강도와 지속성 등 여섯 가지 기준 외에 쾌락과 고통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를 참작해야 한다.

<문제 상황>

부모님께 용돈을 받은 학생 A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 하고 있다. 이때 구호 단체에서 온 기부 권고 문자를 보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대신 기부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 ① 기부 행위가 자연법의 제1원리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보세요.
- ② 선의지에서 비롯된 기부 행위여야 도덕적 행위임을 명심하세요.
- ③ 유덕한 행위자가 행할 만한 것을 그 결과에 상관없이 행하세요.
- ④ 기부 행위가 산출할 쾌락의 양을 쾌락 계산법에 따라 계산해 보세요.
- ⑤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까지 고려하여 기부 여부를 정하세요.

| 제시문 파헤치기 |

제시문 속 사상가는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를 통해 공리주의자 중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벤담이다.

| 선지 해설 |

{정답 해설}

④ 쾌락의 양을 7가지의 기준에 의거한 쾌락 계산법(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 연장성)에 따라 계산하여 쾌락의 양적 비중을 중시한 것은 벤담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자연법의 제1원리(‘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두는 것은 자연법론을 주장한 사상가 아퀴나스의 입장이다.
- ②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주장한 것은 의무론적 관점에서 도덕 원리를 주장한 칸트의 입장이다.
- ③ 유덕한 행위자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은 행위 덕 윤리에 해당하는 입장이다.
- ⑤ 쾌락의 양을 고려하는 것은 공리주의의 입장으로 벤담 역시 동의할 입장이지만, 벤담은 쾌락에 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쾌락의 양과 질 모든 측면을 중시한 것은 질적 공리주의자인 밀의 입장이다. 이는 제시문에서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쉽게 소거할 수 있다.

| COMMENT |

자칫 실수하면 ⑤ 선지 역시 공리주의의 입장이기 때문에 고를 수 있지만, 해당 문항의 제시문을 비롯한 여러 기출 선지에서 벤담의 입장이 아닌 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정답 : ①]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언의 합리성은 근거 제시 가능성에 있다. 또한 담론 참여자가 지닌 태도의 합리성은 자신을 비판에 노출하고, 필요시 논증에 적절히 참여하려는 자세에 있다. 이러한 비판 가능성으로 인해 합리적 발언은 개선될 수 있다.

- ①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자세로 대화해야 한다.
- ②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에 비판적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 ③ 담론 참여자는 합의한 결론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 ④ 담론 참여자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발언의 기회를 제한해야 한다.
- ⑤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준칙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 제시문 파헤치기 |

제시문 속 사상가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언·표현의 자유를 중시한 하버마스이다.

| 선지 해설 |

{정답 해설}

①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 모두의 의견에 오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를 스스로 인정하는 자세로 담론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답 해설}

②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 모두의 의견에 허점이 존재할 수 있으니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타인의 의견에 비판적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판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유는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모든 담론 참여자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하버마스의 입장이다.

③ 하버마스는 합의한 결론보다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거나, 가변적 요인이 존재하여 합의한 결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에는 합의한 결론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문제를 제기하여 효율적 의사소통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입장이다.

④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라면 모두 동등한 발언·표현의 자유가 주어지며, 이는 전문성 등 개인의 특수적 지위와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하버마스가 주장한 심의적 민주주의 속 개인은 사익, 개인적 희망, 개인적 욕구를 추구할 수 밖에 없으며, 하버마스는 이는 자연적인 특성이라고 주장한다.

| COMMENT |

하버마스를 깊게 공부하지 않더라도 모든 선지는 제시문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였다.

[정답 : ④]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람의 본성에 어찌 인의(仁義)의 마음이 없겠는가? 그런데도 그 양심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마치 도끼로 산의 나무를 아침마다 베는 것처럼 스스로 양심의 싹을 자르기 때문이다. 양심을 보존하지 못하면 금수(禽獸)와 같아진다.
 을: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은 마치 사람이 나무를 심어 물을 때맞춰 주고 온도를 유지해 주면, 이 인연(因緣)으로 나무가 자라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얽매임에 집착하면 애욕(愛欲)과 함께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괴로움이 일어난다.

- ① 갑: 나쁜 환경에 처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본성을 잃게 된다.
- ② 갑: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수양이 가능하다.
- ③ 을: 탐욕으로 생긴 번뇌는 깨달음을 얻더라도 소멸될 수 없다.
- ④ 을: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에서 만물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
- ⑤ 갑과 을: 인륜의 규범에서 벗어나야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

| 제시문 파헤치기 |

갑은 인의를 중시하며, 양심을 보존하지 못하면 금수와 같아진다고 선한 본성의 보존을 요구하는 맹자이다. 을은 모든 만물에는 얽매임이 존재하며 인연(因緣)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주장한 석가모니이다.

| 선지 해설 |

{정답 해설}

④ 석가모니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인 자타불이(自他不二)에서 만물에 대한 사랑인 자비(慈悲)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오답 해설}

- ① 맹자는 나쁜 환경에 처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양심을 보존할 수 있다면 인간의 본성인 선(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② 맹자는 자기 수양을 한 후에야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수기안인(修己安人)을 주장한다.
- ③ 석가모니는 탐욕으로 생긴 번뇌라도 깨달음을 얻는 것, 즉 무명(無明)을 극복하고 해탈(解脫)의 경지에 도달하면 소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⑤ 맹자는 인륜의 규범에서 벗어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오륜(五倫·친·의·별·서·신의)을 주장한다.

| COMMENT |

이 문항 역시 동양 사상의 기본적 개념만을 묻고 있지만, 맹자의 수기안인(修己安人), 석가모니의 해탈(解脫) 등 명확한 개념 숙지가 요구된다.

[정답 : ③]

7.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 만인은 서로 늑대처럼 싸우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호 계약을 맺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해야 한다. 이 인격을 지닌 통치자는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다.</p> <p>을 : 절대 권력에 책임을 묻지 않는 식의 합의는 여우나 스컹크를 피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데 만족하는 것과 같다. 통치자가 시민의 생명, 자유 및 자산을 보존하지 못할 때 시민은 통치자에 저항할 수 있다.</p>
(나)	

<보 기>

- ㄱ. A : 국가의 통치자가 사회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가능한가?
- ㄴ. B : 국가는 신의(信義) 계약으로 탄생한 자연적 인격인가?
- ㄷ. B : 국가가 부재하는 곳에서는 각자의 소유권도 부재하는가?
- ㄹ. C :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단지 신탁된 권력만 주어지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제시문 파헤치기 |

갑은 자연 상태를 만인이 늑대처럼 싸우는 전쟁 상태로 보며, 상호 계약을 통해 하나의 인격인 리바이어던(Leviathan)으로의 결합을 주장한 홉스이다. 을은 시민이 계약으로 선출된 통치자에게 행하는 저항을 인정하며 절대 권력에 무조건적 복종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로크이다.

| 선지 해설 |

{정답 해설}

- ㄷ. 홉스는 국가가 부재하는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소유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홉스는 자연 상태인 전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인격인 리바이어던(Leviathan)이 국가 상태에서 개인의 소유권을 규정지었다고 주장한다.
- ㄹ. 로크는 계약(contract)을 통해 사회를 만들고, 신탁(trust)을 통해 국가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여기서의 국가는 국민의 자기 보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소국가를 말한다. 따라서 통치자에게는 신탁된 권력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로크의 입장이다.

{오답 해설}

- ㄱ. (홉스 X, 로크 X)
홉스의 입장에서 국가의 통치자인 리바이어던(Leviathan)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한다는 명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로크의 입장에서 국가의 통치자는 신탁된 권력만 주어지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불의(不義)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치자를 재선출해야 한다.
- ㄴ. 홉스의 입장에서 국가는 만민의 신의(信義) 계약으로 탄생한 인위적·사회적 인격이다. 홉스의 입장에서 자연적 인격은 자연 상태의 자연인뿐이다.

| COMMENT |

다소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다. 통치자의 계약 위반 개념, 신의(信義) 계약 등 출제가 드문 개념이 등장하여 혼란을 빚었을 수 있지만, 킬러유형에 속한 것에 비하면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

[정답 : ④]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것,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적게 먹는 것은 건강을 해치지만, 적당한 운동이나 식사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마땅한 때에, 마땅한 방식으로, 마땅하게 행동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용을 지키는 사람은 칭송받을 만하다.

<문제 상황>

학생 A는 급식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나올 때는 폭식을 하고,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나올 때는 거의 먹지 않고 버린다. 최근 A는 자신의 건강과 올바른 생활 태도에 필요한 식습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 ① 먹는 행위와 좋은 품성의 형성은 서로 무관함을 고려하세요.
- ② 먹는 것은 본능이므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고려하세요.
- ③ 먹을 때 이성이 아닌 감정의 명령에 따라야 함을 고려하세요.
- ④ 먹는 즐거움을 느낄 때에도 절제의 덕이 필요함을 고려하세요.
- ⑤ 먹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행위에 불과함을 고려하세요.

| 제시문 파헤치기 |

제시문 속 사상가는 지나침과 부족함을 지양하고 적절함·마땅함을 추구하는 중용(中庸)을 지향할 것을 요구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 선지 해설 |

{정답 해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먹는 즐거움 속에서도 절제의 덕인 중용(中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답 해설}

- ①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먹는 행위와 좋은 품성의 형성은 유관한 관계이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먹는 것이 본능이라고 한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인간은 그 본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할 경우 이상적 인간상에 도달할 수 있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먹는 행위에 있어 감정이 아닌 이성의 명령을 중시한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먹는 행위는 육체적 욕망을 충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품성적 덕인 중용(中庸)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기회로써 작용한다.

| COMMENT |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식 윤리에 대한 문항은 개정 교육 이후 처음 등장하였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사상과 사고력을 통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이다.

[정답 : ①]

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낸다. 시민 불복종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소수자는 다수자에게 그들의 행위가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위반으로 해석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를 인정하고자 하는지를 숙고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보 기>

- ㄱ.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나타내는 양심적인 행위이다.
- ㄴ. 시민 불복종은 법의 경계선 내에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이다.
- ㄷ. 부정의한 법의 변혁은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제시문 파헤치기 |

제시문 속 사상가는 시민 불복종이 법의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한 법을 향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롤스이다.

| 선지 해설 |

{정답 해설}

ㄱ.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개인의 양심이 아닌 다수의 정의감에 있는 양심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오답 해설}

ㄴ.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정치적 행위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법의 경계선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닌 법의 경계선 밖에서 이루어지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한다.

ㄷ.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부정의한 법의 변혁을 목적으로 지니는 교정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 COMMENT |

롤스의 시민 불복종 개념 중 '법의 경계선'과 '법의 충실성'의 구분, 시민 불복종의 목적의 명확한 숙지 등이 요구되는 문항이었다.

[정답 : ④]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좋은 것의 상징이다. 미적인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하며 요구해야 마땅하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쾌락의 단순한 감각적 수용을 넘어선 순화와 고양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들의 가치도 그들이 지닌 판단력의 비슷한 준칙에 따라서 평가하게 된다.

- ①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은 모두 이해 관심에 근거해야 한다.
- ② 미적 판단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기에 보편화될 수 없다.
- ③ 미적 판단의 대상인 예술은 그 자체로 자율성을 지닐 수 없다.
- ④ 미적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은 도덕성 고양에 기여할 수 있다.
- ⑤ 미적 판단 능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능력에 종속된다.

| 제시문 파헤치기 |

제시문 속 사상가는 미적인 것은 선(善)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며 미적인 것에 보편적 타당성을 요구하는 칸트이다.

| 선지 해설 |

{정답 해설}

④ 칸트는 미적 대상을 통해 발생한 경외심과 같은 감각적 경험은 도덕성을 자극하여 도덕성을 고양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답 해설}

① 칸트는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은 모두 이해 관심과 상호무관심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② 칸트는 미적 판단에 내재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은 만족감을 통해 확장되어 보편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이를 보편적 주관성이라 부른다.

③ 칸트는 근본적으로 예술, 즉 미(美)는 선(善)과 독립된 독자적 자율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⑤ 칸트는 미적 판단 능력과 도덕적 능력은 독립된 자율적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 COMMENT |

칸트의 예술론을 심도있게 학습하지 않았다면 풀이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칸트가 도덕주의자, 심미주의자 모두 아니라는 것 등의 개념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이다.

[정답 : ④]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법은 공공 의사의 표현이다. 법은 살인을 미워하고 처벌한다. 그런데 그런 법이 스스로 살인을 범한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필요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을: 법을 제정하는 행위는 일반 의지의 행사이다. 위법 행위와 형벌의 관계에 따라 형법이 제정된다. 국가에 맞서 전쟁을 선포한 죄인을 사형에 처할 때 우리는 그를 국가의 적으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보 기>

- ㄱ. 갑: 형벌은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집중시켜야만 효과적이다.
- ㄴ. 갑: 법은 살인을 금지하므로 법에 의해 살인하는 형벌은 부당하다.
- ㄷ. 을: 모든 형벌은 범죄자를 시민의 일원으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 ㄹ. 갑과 을: 사회 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형벌은 정당성이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제시문 파헤치기 |

갑은 공리주의·사회 계약론적 관점에서 사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사형은 시민과 국가의 전쟁이라고 주장한 베카리아이다. 을은 사회 계약론적 관점에서 일반 의지를 통한 입법 행위를 주장한 루소이다.

| 선지 해설 |

{정답 해설}

- ㄴ.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의 목적이 생명 보호에 있고, 이를 위해 법이 제정되는데 이에 반하는 법이 살인하는 형벌, 즉 사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ㄹ. 베카리아와 루소는 모두 사회 계약론을 주장하며 이에 반하는 형벌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오답 해설}

- ㄱ. 베카리아는 강도와 지속성을 모두 갖춘 형벌이 옳바르다고 주장하며, 여기에서의 강도는 범죄 억제에 부합할 정도의 강도만을 필요로 한다.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집중시키는 사형은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어 효과적이지 않다.
- ㄷ. 루소는 살인에 따른 형벌인 사형은 범죄자를 시민의 일원이 아닌 사회의 적, 배신자 등으로 간주되어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COMMENT |

단순 갑, 을 동의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기존 출제 경향과 달리 쉬운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루소의 사형의 정당화 근거 등을 명확히 모르면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답 : ③]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 관청에서 쓰는 모든 물건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고 땅에서 물처럼 솟는 것이 아니니, 씹씹이를 절약하면서 물건 사용의 폐해를 살피 백성들의 힘을 덜어 주어야 한다.
- 청렴한 선비는 벼슬자리에 부임하려 갈 때 가족을 데려가지 않는데, 이때의 가족이란 아내와 자식을 일컫는다. 형제 간에는 가끔 왕래해도 되지만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

- ① 사사로운 정(情)에 따른 이익보다는 청렴을 중시해야 한다.
- ② 자애의 덕을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용(節用)해야 한다.
- ③ 청백리가 되려면 자신에게만 관대하고 가족에게는 엄격해야 한다.
- ④ 세금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 ⑤ 공적 재산이 국민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 제시문 파헤치기 |

제시문 속 사상가는 청렴(淸廉)을 공직자의 바람직한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약용이다.

| 선지 해설 |

{정답 해설}

③ 정약용은 이상적 관료상인 청백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답 해설}

① 정약용은 공직자가 사사로운 정(情)에 따른 이익, 즉 사익보다는 청렴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정약용은 공직자가 애민을 사랑을 베푸는 자애의 덕, 즉 애민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절용·절약을 필요로 한다.

④ 정약용은 공직자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정약용은 공직자가 공적 재산은 당연한 것이 아닌 국민의 노력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상시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COMMENT |

정약용의 공직자 윤리는 기존 출제 경향과 유사한 쉬운 난이도였다.

[정답 : ⑤]

13.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性)은 사적 자유의 영역을 넘어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와도 관련됩니다.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만이 정당합니다. 부부 간의 사랑이야말로 성의 근거입니다.



갑

성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굳이 결혼과 결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 쾌락만을 추구하는 성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을

- ① 갑: 성적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가 사회적 책임보다 중요하다.
- ② 갑: 출산과 양육은 바람직한 성적 관계의 조건이 아니다.
- ③ 을: 성적 관계는 윤리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 ④ 을: 정당한 성적 관계는 당사자 간의 동의로 충분하다.
- ⑤ 갑과 을: 성적 관계는 당사자 간의 사랑을 전제해야 한다.

| 제시문 파헤치기 |

갑은 결혼을 전제로 한 성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보수주의 입장이 다. 을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성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중도주의 입장이다.

| 선지 해설 |

{정답 해설}

⑤ 보수주의와 중도주의 입장 모두 성적 관계는 당사자의 사랑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답 해설}

- ①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성적 관계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개인의 자유보다 중시한다. 성적 관계에서의 사적 자유를 중시하는 것은 자유주의 입장이다.
- ② 보수주의 입장에서 출산과 양육은 성적 관계의 바람직한 조건이자 목적이다.
- ③ 중도주의 입장에서 성적 관계는 윤리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다.
- ④ 정당한 성적 관계의 충분조건이 당사자 간의 동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도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입장에 해당한다.

| COMMENT |

유사 독해형 문항으로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이었다.

[정답 : ②]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 즉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다.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제하는 원칙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을: 정의의 주제는 세 가지이다. 즉,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던 것이 어떻게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가, 한 사람의 소유물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부정의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이다.

<보 기>

- ㄱ. 갑: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 능력의 차등이 있어도 성립한다.
- ㄴ. 을: 각 개인에게 소유물을 분배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의롭다.
- ㄷ. 을: 소유물 취득의 정당성은 타인의 처지 개선을 요구한다.
- ㄹ. 갑과 을: 개인은 사유 재산을 소유할 불가침적 권리를 지닌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제시문 파헤치기 |

갑은 가상적 자연 상태인 원초적 상태를 주장하며 사회 협동체에서의 정의로운 분배를 중시한 롤스이다. 을은 정의의 세 가지 주제인 취득, 이전·양도, 교정과 함께 최소 국가를 주장한 노직이다.

| 선지 해설 |

{정답 해설}

- ㄱ. 롤스는 천부적 능력의 차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을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정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 ㄴ. 롤스는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정의의 원칙 중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의거하는 기본적 권리로 불가침적이라고 주장한다. 노직은 정당하게 취득한 사유 재산이라면 이를 소유할 배타적·절대적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오답 해설}

- ㄴ. 노직이 최소 국가를 옹호하였지만, 최소 국가는 소유물을 분배하는데에 개입할 수는 있어도, 이를 직접적으로 분배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ㄷ. 소유물 취득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해 타인의 처지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노직의 주장이 아닌 롤스의 주장이다.

| COMMENT |

차등의 원칙과 최소 국가의 개념이 명확히 숙지되지 않았다면 어려울 수 있는 문항이다.

[정답 : ②]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면 고통에 대한 공감에 무더져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도덕성에 매우 유익한 천성적 소질이 고갈될 수 있다.</p> <p>을: 어떤 존재가 느끼는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는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고통과 평등하게 계산하도록 한다.</p> <p>병: 경제적 이익 계산의 문제로만 바람직한 대지의 이용을 생각하지 말라.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p>
(나)	

<보 기>

- ㄱ. A: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부합한다.
- ㄴ. B: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행위자임을 판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다.
- ㄷ. C: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수 있다.
- ㄹ. D: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제시문 파헤치기 |

갑은 동물 학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근거로 인간의 도덕성을 주장한 인간 중심주의 칸트이다. 을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쾌고 감수 능력의 여부에 따라 도덕 고려 대상을 구분한 동물 중심주의 싱어이다. 병은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을 주장하며 그 자체의 도덕적 가치를 주장한 생태 중심주의 레오폴드이다.

| 선지 해설 |

{정답 해설}

ㄱ. (칸트 0, 싱어 X, 레오폴드 X)

칸트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도덕성을 약화시키는 것, 즉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싱어는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원인을 쾌고 감수를 지니는 동물을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의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레오폴드는 모든 생명체를 포함한 대지까지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 범위로 본다.

ㄷ. (칸트 X, 싱어 X, 레오폴드 0)

레오폴드는 생태계 자체와 개별 생명체 모두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레오폴드는 생태계와 개별 생명체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생태계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전체론적 입장을 취한다. 반면 칸트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싱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 여부를 쾌고 감수 여부를 기준으로 본다.

{오답 해설}

ㄴ. (칸트 X, 싱어 X, 레오폴드 X)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임을 판별하는 기준이 아닌 도덕적 지위의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ㄹ. (칸트 X, 싱어 X, 레오폴드 0)

레오폴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우열 관계를 지니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싱어는 인간이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생명체보다 우월함을 인정한다.

| COMMENT |

칸트의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의 내용, 환경 윤리학자가 주장하는 각각의 도덕적 고려의 대상 범위 등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이었다.

[정답 : ④]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국제 사회에서 평화 실현은 도덕적 의무이다. 국가는 세계 시민법에 따라 외국 방문객이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적대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세계 시민법의 이념은 공적인 인권과 영원한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

을: 국제 정치에서 평화 유지는 세력 균형을 통해 가능하다. 모든 정치가 그러하듯 국제 정치도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국제 정치의 본질상 평화 상태에서도 폭력 사용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 ① 갑: 국가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
- ② 갑: 국가 간 신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을: 국제 정치에서 개별 국가들의 권력욕은 갈등의 원인이다.
- ④ 을: 국제법에 근거한 세력 균형이 유일한 평화 유지 수단이다.
- ⑤ 갑과 을: 국제 연맹은 독립된 국가처럼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시문 파헤치기 |

갑은 세계 시민법을 통해 보편적 우호 조건을 주장한 칸트이다. 을은 세력 균형을 통해 국제 정치에서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 현실주의 모겐소이다.

| 선지 해설 |

{정답 해설}

④ 모겐소는 세력 균형이 평화 유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세력 균형은 국제법에 근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국제법 등의 국제적 도덕제도는 평화 유지에 큰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주의의 입장이다.

{오답 해설}

- ① 칸트는 보편적 우호 조건을 통해 이방인이 타지에서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환대권을 담은 세계시민법을 주장하지만, 이방인이 평화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호의적으로 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 ②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한 여섯 가지의 예비 조항을 제시하는데, 그 중 제6항인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와의 전쟁에서 장래의 평화에 대한 상호간의 신뢰를 불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③ 모겐소는 개별 국가는 국익을 추구하는 권력욕이 있는데 이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국제 정치에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본다.
- ⑤ 칸트와 모겐소 모두 국제 연맹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세계 정부와 같은 단일 정부에 반대하며, 평화 연맹은 개별 국가의 주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역할한다고 주장한다. 모겐소는 개별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권위체는 없으며, 만일 국제 정치가 도입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권위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COMMENT |

모겐소의 국제 관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이었다. 이를 테면, 모겐소의 갈등 원인, 평화 수단 등 기본적인지만 자주 등장하지 않는 내용들을 숙지할 것을 요구한다.

[정답 : ②]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람에게 인(仁)은 물과 불보다 더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물과 불로 인해 죽은 사람은 보았지만, 인을 실천하다가 죽은 사람은 아직 보지 못하였다.

을: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과 같다. 이러한 이치에 통달한 지인(至人)을 물과 불이 다치게 할 수 없고, 추위와 더위가 해칠 수 없으며, 짐승들마저도 죽이지 못한다.

- ① 갑: 죽음 이후에 관한 지식이 삶에 관한 지식보다 중요하다.
- ② 갑: 죽음을 맞이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道)를 추구해야 한다.
- ③ 을: 죽음은 삶에서 지은 업(業)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이다.
- ④ 을: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마땅히 슬퍼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삶과 죽음은 운명[命]에 따라 주기적으로 순환한다.

| 제시문 파헤치기 |

갑은 인(仁)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은 유교의 공자이다. 을은 삶과 죽음을 자연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깨달으면 지인(至人)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도가의 장자이다.

| 선지 해설 |

{정답 해설}

② 공자는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도덕성에 내재된 도(道)를 추구하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을 요구한다.

{오답 해설}

- ① 공자는 죽음 이후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공자는 죽음보다 현재의 삶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 ③ 장자의 입장이 아닌 석가모니의 입장이다.
- ④ 장자는 삶과 죽음을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라고 본 것은 맞으나, 이에 슬퍼해야 한다는 것은 도가가 아닌 유교의 입장이다.
- ⑤ 장자는 삶과 죽음이 운명에 따라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자는 삶과 죽음이 순환의 과정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 COMMENT |

공자의 선지로 ‘도(道)를 추구’하라는 선지가 등장해 혼란스러운 학생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유교에서도 도(道)의 실현을 강조한 것은 기출에서도 볼 수 있어 꼼꼼히 학습할 것을 요구한 문항이었다.

[정답 : ③]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의 기술이 신출한 행위들은 그 규모와 대상, 결과가 너무나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은 전통 윤리학의 틀로서는 더 이상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나는 서로 관련된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한다. 하나는 인간의 기술적 힘이 발전하면서 인간 행위의 본질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 행위의 변형된 본질로 인해 윤리학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 ① 인간은 호혜적 관계를 맺는 존재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 ② 현대 과학 기술의 힘은 인간 행위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 ③ 기술로 얻은 힘의 크기가 커질수록 인간의 책임 범위는 넓어진다.
- ④ 과학 기술로 인한 비의도적 결과는 인간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
- ⑤ 전통 윤리학은 미래 세대의 생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 제시문 파헤치기 |

제시문 속 사상가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윤리학의 변화도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요나스이다.

| 선지 해설 |

{정답 해설}

③ 요나스는 기술로 인한 힘의 크기가 커질수록 인간의 책임 범위는 물론 사회·규범적 요인까지 변화[확장]시킬 것을 요구한다.

{오답 해설}

① 요나스는 인간은 호혜적 관계를 맺는 존재뿐만 아니라 비호혜적 관계를 맺는 존재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② 요나스는 기술의 힘이 인간 행위의 본질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윤리학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④ 요나스는 과학 기술로 인한 의도적 결과와 비의도적 결과 모두 인간이 져야할 책임 범위 내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⑤ 요나스는 전통 윤리학이 현재 세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생존 문제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윤리학의 등장을 요구한다.

| COMMENT |

어렵지 않은 난이도의 문항이었다.

[정답 : ③]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질서 정연한 사회의 장기 목표는 무법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에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되면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다.

을: 우리는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할 의무를 지닌다. 우리에게서 얼마 되지 않는 비용으로 곤궁한 타인의 복리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 발생하는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보 기>

- ㄱ. 갑: 독재나 착취로 빈곤한 사회는 원조 대상이 될 수 없다.
- ㄴ. 갑: 고통받는 사회가 스스로 정치 문화를 개선하도록 원조해야 한다.
- ㄷ. 을: 지구촌의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의 의무는 정언 명령이다.
- ㄹ. 갑과 을: 원조의 목적은 인류 복지 수준의 균등화가 아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제시문 파헤치기 |

갑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인도하는 것을 원조의 목적으로 본 롤스이다. 을은 전인류적 쾌락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킬 의무를 원조로 환언하여 주장한 싱어이다.

| 선지 해설 |

{정답 해설}

- ㄴ. 롤스는 원조를 강제해서는 안되며, 원조의 대상인 고통받는 사회가 스스로 정치 문화를 개선하도록 돕는 조력자로서 역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ㄹ. 롤스는 원조의 목적을 인류 복지 수준의 균등화가 아닌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것으로 본다. 싱어는 원조의 목적이 인류 전체의 공리를 증진하는 것으로 본다.

{오답 해설}

- ㄱ. 롤스는 무법 국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독재나 착취로 빈곤한 사회, 즉 고통받는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되어 질서 정연한 사회에 가입하는 것을 원조의 목적으로 본다.
- ㄷ. 싱어는 원조의 의무가 무조건적 명령, 즉 정언 명령이 아닌 조건적 명령이라고 주장한다.

| COMMENT |

롤스와 싱어의 원조 내용을 정확하고 꼼꼼히 알고 있어야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이었다.